

序 文

나라에 國史가 있고 일가에 族譜가 있고 私家에 家乘이 있다 도
리켜말해서 한나라에 國史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民族과
燦爛한 文化가 있다해도 그 民族 그 文化가 保存될수 없고 한
宗族에 아무리 偉大한 祖上이 계시고 훌륭한 族閥이 있었다
해도 家乘이 없고 族譜가 없으면 그 偉大한 祖上 훌륭한 族閥
이 繼承될수 없고 子孫으로써 알수가 없게 된다

대체 族譜는 무엇인가 위로 受姓 卮貫하신 祖上으로부터 아래
로 子孫百千代에 이르기까지 無親 無疎하고 無貴 無賤하며 한사
람도 빠짐없이 序次에 따라 列記하는 典籍이다 그러므로 家乘
이 모여서 族譜가 되고 族譜가 모여서 國史가 될수있는 것이다
옛날 太古時代를 回顧해서 天皇 地皇 人皇氏가 모두 一萬八
千歲의 長久한 歷史의 훌륭한 制度가 있는줄 思料하오나 史

上收錄이 없음으로 史家가 말하기로 造書契以前은 年代國都
 를 不可攷라 하였다 이 얼마나 안타까울가 比喻해서 나무가
 千枝萬葉이 있더라도 뿌리는 하나이요 물이 千流萬波가 있더
 라도 그源泉은 하나이며 우리사람도 百子千孫이 되더라도 그
 祖上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뿌리없는 枝葉이 있을수 없고 源
 泉없는 流波가 있을수없고 祖上없는 子孫이 있을수 없다 반
 드시 그 뿌리를 북돋우어야 枝葉이 繁茂하고 源泉을 保護해
 야 流波가 長遠하여 江이 되고 河漢이 되듯이 우리사람도 그
 祖上을 敬慕하고 追崇해야 子孫이 和睦하고 族親이 이루어져
 서 門戶가 昌大繁榮하는 것이다

族譜의 制度가 옛날 中國의 歐陽子 蘇明允氏로부터 始作되어
 그 厚風美俗이 우리나라에서도 移入하여 士大夫家로서 어느
 姓氏 어느 門中을 莫論하고 모두들 修譜해왔다

요즈음 世道가 陵夷하고 人心이 離散하여 私利之心이 앞서고
 倫理가 뒤떨어져서 骨肉之親이 讐賊이 되고 宗族之親은 路人
 처럼보며 悖倫亂常兒가 比日續出하여 世上의 耳目을 驚愕케
 함은 그 理由가 어데잇을가 모두가 忘祖忘本하고 無親無族하
 며唯我獨存에부터 나온것이다

程子말씀에 天下人心을 管攝할려면 먼저 宗族을 收合하고 風
 俗이 淳厚해야 한다하시니 眩亂한 이世上에 世道를 바로잡고
 人心을 收拾하는데는 宗族을 收合하고 派系를 分明하는것이
 急先務이며 修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楊姓이 이 나라의 巨
 族으로 高麗에서 李朝에 이르기까지 簪纓世德이 赫赫綿綿하
 니 尚書公의 討賊勲業과 中城君의 討賊酬勲封君의 偉業과 正
 郎公의 點馬書狀官으로 奉使中國하여 書狀中 獻馬五十匹이 五
 千匹로 誤書한 事實로 나라의 責任을 代身受罪被竄하여 湧金

門에서 十四年을 未還本國하고 異域殊邦에 客死하신 孤忠大節과 掌令公의 端宗遜位를 보고 棄官不仕하신 鬱忿한 忠義의 大司憲大峰公의 文章道學이 妙年鳴世하고 清宦要職을 歷敷하시면서 戊午被禍士類를 疏救하신 完名峻節과 司孟雙栢堂公의 燕山昏朝를 마다하시고 休官歸隱하신 潔行清德이 모두가 吾族의 光榮이며 우리子孫의 자랑이며 族譜의 史料이다

丁酉修譜한후 以來 벌써 一世가 되니 그동안 生卒이 頗多하고 轉徙가 不少하여 다시 修譜할時期가 到來하였다 去己未秋 서울宗親會에서 異口同聲으로 修譜가 發議되어 可決하고 今年 春始祖公壇享後 總會에서 다시 完議하여 設役着務하였다 原稿가 마련됨에 派系가 分明하고 昭穆이 整然하여 孝悌之心이 油然而生이라 이것이 吾楊의 多幸이 아니리오 그러나 在京諸族과 池山一部가 不參한것이 遺憾스럽다

舊譜에 依據하여 登載하니 이른바 爲山九仞에 功虧一簣가 된
 다 南北統一이 되고 全族誼가 融和團合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刊事가 畢함에 衆議가 나를 首末에 參與했다하여 弁文을 請
 하기로 僭妄을 무릅쓰고 右와 같이 叙述하나이다

光復後庚申十月 日

後孫 泰烈 謹識

宗十一年庚午九月에 公이 高汝霖과 같이 唐岳君의 長子이시다 高麗元
 島賊은 討伐하니 그해 十二月에 金方慶將軍이 接應하여 珍
 島에 이르자 賊이 船舶으로서 包圍하고 驅迫해오는지라 公
 이 柴草를 살고 火攻하는 뒤에 舟中 擊退放出하고 賊은 逃走
 하었다 이 事實이 東國通鑑高麗史에 昭詳히 記載되어 있다
 判書公事實

公諱遇唐岳君玄孫禮判元植長子也以書狀官入中國本朝貢馬五十
 匹以五千匹誤書書狀中當獻馬之時只以五十匹納貢 帝怒其故公

中和楊氏世譜

始祖

楊浦

任中朝為龍
虎衛上將軍有
勳勞於東國麗
朝封唐岳君位
至政丞唐岳即
中和子孫因以
為貫
墓忠州內倉近
地而今失不傳
舊有碑碣山下
人拔去埋田畝
間云
光復後甲寅三
月十五日以宗
議設壇于大邱
市壽城區巴洞
山三九番地梧
川書院左稍上
艮坐原每年陰
三月十五日定
行享禮 後孫
泰烈製常享祝

二世

子東茂

吏部尚書諫
議大夫
高麗元宗庚午
九月與金方慶
高汝霖等討珍
島賊裴仲孫
十二月賊以船
圍之驅迫公以
蒙衝擊救之賊
乃解去
事載東國通鑑
高麗記
墓失傳設壇于
府君壇階下三
月十五日奉行
享禮

三世

子基

典書
墓失傳設壇于
唐岳君壇階下
三月十五日奉
行享禮

四世

子伯厚

副令
墓懷仁南面粉
脂谷甲坐

五世

子元格

內侍尹吏曹
判書
墓懷仁南面粉
脂谷甲坐
配貞夫人孫氏
墓合窆

六世

子漢

刑曹判書
墓失傳 設壇
于唐岳君壇階
下三月十五日
奉行享禮
配和順崔氏
宗府令元之
女
縣令
墓失傳設壇于
唐岳君壇階下
三月十五日奉
行享禮

七世

子孟純

子斯悌
子斯信

子元擇

墓文義岱日

谷